광주경총, 나건 교수 초청 금요조찬포럼

AI시대 기업 생존은 '새로운 눈'…창의성이 혁신 이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기업 혁신 전략 제시
"화려한 기술보다 새로운 안목에 집중해야"

"급변하는 위기 상황일수록 화려한 기술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디자인'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건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30회 금요조찬포럼에서 'AI시대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디자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통찰력과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과거에는 대학교 때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졸업할 때면 이미 옛것이 되어버리는 급변의 시대"라며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와 타이밍이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초연결·초지능·초산업'으로 정의하며 현재 산업계가 직면한 지각변동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정밀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는 인간의 두뇌로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온다"며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 인프라가 바로 AI"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석이 사라진 자율주행차가 이동 수단을 넘어 실내 공간 디자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탈바꿈하듯, 이러한 변화는 제조·서비스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거센 기술적 대전환 속에서 그가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명확했다. 바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 경영'이다.

나 교수는 디자인의 본질을 "보기 좋고 쓰기 좋게 만들어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최적의 가격 조건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화려한 볼거리나 외형적 치장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디자인은 최단 기간에 가장 확실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가성비 높은 혁신 엔진'으로 해석된다.

나 교수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결국 고객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며 "경영자가 가격 주도권을 쥐고 제품의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교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창의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기존의 요소들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며 "하지만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익숙함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다른 시각과 배경을 가진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공감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나 교수는 "새로운 도전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한 직원들은 절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는다"며 "경영자는 조직 내에 실패를 용인하는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을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교수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나만의 고집스러운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건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학과 교수는 카이스트 산업공학 석사 및 미국 태프츠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장과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김은지 기자 eunzy@

지난 14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30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나건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학과 교수가 'AI시대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소진공은 최근 지능정보화위원회 출범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AI 활용 소상공인 지원체계 혁신

지능정보화위원회 출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혁신과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소진공은 최근 공단 본부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정보화위원회는 급변하는 AI·데이터·디지털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지능정보화 정책과 인공지능 전환(AX) 과제를 전사적으로 조정·심의·자문하기 위해 신설됐다.

소진공은 AI 도입을 단순한 내부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전략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통합·폐기와 AI 도입·활용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등을 심의·조정·자문한다.

이는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대기업, 비주력 사업 정리…AI·반도체 투자 확대

3개월간 계열사 75곳 편입·79곳 제외…사업 재편 속도

국내 대기업들이 비주력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2026년 5~7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을 조사한 결과, 102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지난 5월 1일 3538개에서 지난 3일 3534개로 4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 35개 집단에서 회사 설립과 지분 취득 등을 통해 75개사가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반면 28개 집단에서는 흡수합병과 지분 매각, 청산 등을 통해 79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계열 편입이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은 효성으로 11개사였으며 GS 9개사, 대명화학 7개사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계열 제외는 DB가 13개사로 가장 많았고 효성 8개사, SK 7개사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들이 기존 사업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핵심 사업과 거리가 있는 분야를 정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SK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계열사 등 5개사를, CJ는 동물용 사료 제조업체 등 2개사를, 원익은 영화 제작사 등 3개사를 각각 계열에서 제외했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위해 민관 합작법인인 한국에이아이컴퓨팅센터와 냉각·공조 솔루션 기업 플랙트그룹코리아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GS 역시 AI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4개사를 새롭게 계열에 포함했으며 OCI는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관련 기업 2개사를 편입했다.

반도체와 차세대 소재 분야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다.

한솔은 반도체 검사 부품 제조기업 윌테크놀러지를, 효성은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업을 계열사로 편입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변화도 계열사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라인과 웅진, 희성, QCP그룹 등은 친족이나 임원이 지배하던 회사를 독립경영이나 임원 사임, 청산 등의 방식으로 계열에서, 기존 대기업집단 가운데 중흥건설과 효성, 반도홀딩스 등도 친족 독립경영 등을 인정받아 일부 계열사를 제외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력거래소, AI·재생에너지 인재 채용

전력경제·계통·AI 전문경력직 10명·신입직 5명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재 확보에 나선다.

전력거래소는 2026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경력직과 신입직 등 총 16명을 비롯해 더불어체험형 청년인턴 10명 등을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채용에서는 △전력경제·계통 및 AI 분야 전문경력직 10명 △신입직 5명 △전사 AI 전환을 총괄하는 전문계약직 1명 등을 선발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사 AI 전환 팀장 채용이다. 전력거래소는 AI 분야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전력계통 운영과 실시간 관제 등에 AI 기술을 선제적 접목하고, 이를 전력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의 복잡성 증가에도 대응한다.

채용 과정은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블라인드 채용 원칙이 적용된다. 지원서에는 연령과 성별, 출신 학교, 출신 지역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형평 채용도 확대한다.

기존 서류·필기전형에서 일괄 적용하던 3% 수준의 가점을 지원자의 진입 장벽 완화와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5% 가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까지 전력거래소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